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성도는 감사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가 선교적 도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사야 12장은 1-11장을 마무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마무리되며, 구원의 기쁨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되돌려집니다.

1. 진노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 날에’ 임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사 11:10-11). 특별히 하나님은 새로운 왕,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흑암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사 53:10-12),

모든 감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2.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날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온 인생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던 유라굴로 광풍 속 배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희망이 없다고 절규하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구원의 기쁨은 목마른 자들이 우물(샘)에서 물을 얻는 것에 비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샘이 되셔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요 4:14; 7:37). 세상은 목마름에 여러 대안들을 내놓지만 참되고 유일한 생명수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이 구원의 샘물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제 목마름에 지친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을 유일하고 참된 샘으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찬양과 감사는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입술의 열매로 증거됩니다. 작은 감사로 인해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